

임진왜란 이후 朝·日간의 국내사정과 통신사 파견*

—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파견을 중심으로 —

김문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과 조선의 입장
- III.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과 에도막부의 입장
- IV.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의 활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임진왜란 이후 1607년 제1차 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한 朝·日간의 국내외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활동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후기 통신사가 파견된 목적과 배경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조선 국왕이 일본의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정치·외교사절’로 ‘선린우호’를 표방한 점은 동일했다.

특히 여기서는 일본 측이 조일 국교 문제를 조속하게 타결하려 했던 사정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국내 권력 장악 과정과 연동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

* 이 논문은 2018년도 임진란사 학술대회 <부산지역의 임진란사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mjakim@smu.ac.kr

았다.

그 결과 1607년 회답겸쇄환사 일행은 조선 국왕의 회답 국서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명분 없는’ 전후 처리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회답과 쇄환이라는 명분도 중요했지만 결국 일본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이 일행은 정치·외교적인 사행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1606년 이후 에도성·스뽀성의 축조·무가의 권위 제도 장악 등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하여 이에야스는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려 했고, 그 전제로서 통신사 파견을 재촉했던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이 요구한 이에야스 자신의 국서 요구와 狁陵賊 송환 문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였다.

1606년은 히데요시 정권과 차별성도 생겼고, 에도막부 장군의 승계 문제도 마무리된 해이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대외적인 외교·무역을 집중함으로써 에도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장군 권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해 조선과 교류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재개, 피로인 송환, 교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12회의 통신사행은 그 파견 목적에 따라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 <교린 관계 안정기>,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 단계로 파악하여 정치사절, 외교사절, 경제사절, 문화사절로서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사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동하면서 조선의 존립을 지키려 했던 ‘정치·외교사절’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임진왜란, 통신사, 회답겸쇄환사, 에도막부, 정치외교사절

I. 머리말

근세 시기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은 전쟁과 평화의 외교 ‘임진왜란과 통신사’이다. 전자의 경우는 침략의 상처가 4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남아서 양국 간의 우호를 가로막는 遠因이 되고 있다. 7년간 조선에 막대한 인명살상

과 엄청난 국난 손실을 가져다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즉 ‘임진왜란’을 일본에서는 ‘가라이리(唐入り)’, ‘조선진(朝鮮陣)’, ‘고려진(高麗陣)’, ‘정한(征韓)’, ‘조선정벌(朝鮮征伐)’, ‘조선역(朝鮮役)’, ‘문록·경장(文祿·慶長)의 역’ 등으로 칭하면서 상당한 기록과 문서가 남아 있다.

후지는 일반적으로 조선 국왕 명의로 일본의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총 12차례 파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미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1429년부터 임진왜란 기간)에 약 7차례, 통신사가 왕래하였다.¹⁾

이처럼 통신사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일본의 아시카가(足利)정권과 도요토미(豊臣)정권, 도쿠가와(徳川)정권의 최고 통치자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파견되었고, 에도시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례화’되었다.²⁾ 일본 측 자료에는 ‘信使’, ‘朝鮮來聘使’, ‘朝鮮聘禮使’로 지칭되었다.³⁾

- 1) 임진란 발발하기 직전인 1590년과 전쟁 중에 파견된 1596년 사신 일행을 통신사로 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다. 실제 1596년 일본에 사신을 다녀온 黄愼은 당시 기록을 『日本往還記』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7차례 통신사가 파견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2) 본고에서는 3회에 걸친 회답검쇄환사를 포함해서 전부 통신사로 칭했다. 명칭을 정할 때 외교사절인 만큼 국내사정과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별로 부른 명칭이 다르고 성격도 상이하지만, 3회의 쇄환사가 모두 국서를 지참한 국왕사절단이라는 점과, 원역의 구성과 사행 노정 등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12회를 전부 통신사로 칭하였다. 하우봉,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교일본학』 43, 2018, 3쪽. 장순순,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측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왜관과 한일 관계』 경인문화사, 2005, 38~58쪽.
- 3) 일본에서 통신사를 부르는 명칭이 시기,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이유로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信使’, ‘朝鮮來聘使’, ‘朝鮮聘禮使’라 사용하였고, 天和信使記録, 享保信使記録, 寶歷信使記録처럼 통신사로 칭하기 보다는 연대를 기입한 후 ‘00信使’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入貢’ ‘來朝’라는 용어보다는 ‘來聘’이라는 용어로 오히려 사절의 접대를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적지 않았다.

한편 임란 이후 조선은 전쟁이 종결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대천지 원수’인 일본과 국교 재개를 하였다. 자세한 배경은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거듭되는 강화 요청과 조선의 국내외 사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604년 6월 사명대사·孫文彥의 ‘탐적사’ 파견과, 1607년 1월 呂祐吉 일행의 제1차 回答兼刷還使 파견이다. 이들의 활약으로 양국 간의 국교는 정식으로 재개되어, 2년 후인 1609년 6월에는 ‘己酉約條’ 체결, 1611년에는 세전선이 정식으로 도항했다. 이로써 임란 후, 조·일 양국 간의 외교 및 교역 관계는 모두 재개되었고, 명실 공히 교린 체제가 회복되었던 것이다.⁴⁾

본고에서는 임진란 이후, 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한 조·일간의 국내외 사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여기서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회답겸쇄환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행이 이후에 파견되는 사절의 전례가 되었고 통신사의 ‘원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임란 이후 260년간 지속된 대일본 관계에서 외형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사절 규모, 구성, 물품 준비 등 이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와 동질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⁶⁾

지금까지 연구는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한 조선 측 입장을 중심으로

4) 孫承詒,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14-23쪽. 최근 통신사의 핵심내용인 ‘교린’에 관한 문제제기는 주목할 만하다. 후술하는 통신사의 시대구분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岩方久彦, 『조선 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 『지역과 역사』 38, 2016, 115~116쪽.

5) 종래 연구에서는 임란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 朝·日 양국 간의 국교가 재개되었는지, 조선의 국내외 사정, 국서 위조 문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외관,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 환경 등을 시야에 넣어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줄고,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중앙사론』 44, 2016, 151~154쪽 참조.

6) 양홍숙, 『17世紀 前半 回答兼刷還使의 派遣과 經濟的 意味』,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학고방, 2008, 169~170쪽.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본 측이 조일 국교 문제를 조속하게 타결하려 했던 사정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국내 권력 장악 과정과 연동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즉, 1603년 이에야스는 에도막부를 세웠으나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권력 장악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전쟁 중의 功過 문제가 영지배당 및 전후처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에야스가 조선과 화호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신사를 요구하면서, 조·일 국교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려 했던 국내의 사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임란 후 제1차 회담겸쇄환사 파견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조선시대 후기 통신사가 파견된 목적과 배경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조선 국왕이 일본의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정치·외교사절’로 ‘선린우호’를 표방한 점은 동일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임란 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정치·외교사절’로서 통신사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1차 회담겸쇄환사 파견과 조선의 입장

1598년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11월 17일~19일 사이에 대부분 철수하였다. 12월 9일 도토우 다카도라(藤堂高虎)가 ‘일본군 완전 철수’를 보고하고, 12월말 히데요시의 죽음과 유언이 공개되면서 그의 무모한 7년 전쟁은 종결되었다.⁷⁾ 임진란은 조선에게 아물 수 없는 깊은

7) “上關よりの書狀、披見申し候、仍って高麗表御無事に相濟み、何れも歸朝の儀、大慶に候、猶面を以て申すべく候間、具さ能わず候、恐々謹言”。『高山藤實錄7』, 『高山藤

상흔을 남긴 것은 물론, 동아시아 삼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이 이전과 같은 교린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교회복은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과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결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피로인을 송환해야 하는 조선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또한 일본 재침설과 북방 후금 세력의 팽창에 대한 새로운 경계 의식과 위기의식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⁸⁾

반면 일본 측 대마도의 경우, 조선과의 강화 및 교역 재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양국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쇄환 문제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단절된 통교 무역을 재개하고자 했다. 藩의 재정을 부활시키는 위해서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 적극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도막부)도 전쟁에 대한 懷疑와 厭戰 분위기가 일본 국내에 만연하자 撤收와 兵站보급, 후방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일본 국내를 안정시켜 권력 구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조선과 국교를 맺은 뒤 明을 포함한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편입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상황이 작용했던 조선과 경제적·정치적 목적이 상이했던 대마도·에도막부의 입장 때문에 조·일 양국 간에 접촉이 있

實錄 藤堂高虎』131-132쪽.

8) 이와 관련해서 김태훈은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조일간의 국교회복이 성립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 동아시아 각국이 당면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쟁 기간 동안 누르하치에 의해 진행된 여진족의 통합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는, 17세기 초의 시점에서 조선, 명, 일본 3국에 공통적으로 큰 압박으로 작용한 대외적인 요인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3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이 비정상적으로 신속한 조일간 국교회복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라고 보고 있다. 김태훈, 『17세기초 조일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학연구』 50, 2018, 158~159쪽.

었던 것이다. 그 결과 1607년 1월~7월(5개월간)에 제1차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었고, 이어서 1617년 7월~10월(3개월), 1624년 10월~3월(5개월)에 걸쳐 2·3차 회답겸쇄환사가 渡日했다.

1636년 이후에는 ‘통신사’ 명칭이 부활되면서, 나머지 9회는 ‘통신사’ 명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파견 목적은 1636년 일본의 태평 축하, 1643년 장군 이에미츠(家光)의 득남(‘와카기미(若君)’탄생)을 축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장군의 襲職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⁹⁾ 그러면 임란 이후 260년 간 지속된 통신사 파견의 첫 시도였던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명의 완전 철수(1600년8-9월)와 대마도의 재침략 풍문, 그리고 만주 지역 여진족들의 심상치 않은 동태로 조선은 일본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항복이 “오늘날 강화하는 일은 전과 달라서 존망과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다만 변방에서 도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이 시기 까지도 ‘借重之計’ ‘羈縻策’의 일환으로 일본 측(대마도) 요구에 대응해 나갔던 것이

9) 조선시대 당시에는 12차례의 사행을 모두 아울러 통신사로 인식하고 있었고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통신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通文館志』나 『增訂交隣志』와 같은 조선시대 외교 자료집에서도 세 차례의 회답겸쇄환사를 통신사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훈 씨는 일본 측이 사행 명칭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과 조·일 상호간에 충분한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로인쇄환’이라는 중대 과제를 외교문서에 적시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명을 의식해서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즉 선조의 국서 및 예조의 서계에 회답겸쇄환사라는 호칭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의 통신사란 원칙적으로 교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직후에 파견된 탐적사는 통신사라 칭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시 12차례 사행을 모두 통신사로 칭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하우봉,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9, 2018. 161쪽. 이훈, 『임란 이후 ‘회답겸쇄환사’로 본 대일본 외교 전략 선조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283쪽·295~296쪽.

다.¹⁰⁾

한편 1601년부터 대마도가 공격적으로 교섭 요구를 하면서 6월에 피로인 250여명을 쇠환하자 조선은 임란 이후 본격적으로 대일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국내에서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내전이 있었던 점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패하여 사망했다는 정보도 무관하지 않았다.¹¹⁾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침략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조선은 일본 정세와 정보를 직접 탐색하기 위해 교섭을 재개하려는 방향으로 기운이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강화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로인을 송환하는 문제도 급선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 때문에 대마도와 교섭 창구를 열었던 것이다.¹²⁾

10) 이와 관련해서 최근 荒木씨는 “조선은 <帝王待夷之道>라고 하는 강화를 위한 명분을 구축하여 대마도에 대한 羈縻의 재개를 선언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荒木和憲, 『화해를 위한 노력과 결실-기유 약조의 체결,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8, 11월, 101쪽 (이후 이 논문은 『己酉約條의 締結・施行過程と對馬の『藩營』貿易』,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한일문화교류기금편, 경인문화사, 2019년에 출간됨). 1600년부터 1604년 4월까지 대일정책을 주도하였던 이덕형은 ①선불리 중앙정권(에도막부)과 강화하기 보다는 명의 위세를 빌리고 ② 명의 참관하에 대마도와 강화요구에 대응하다가 조약을 맺어 開市를 허용하고 ③대마도를 포섭한 후에 일본(막부)과 강화가 가능할 만큼 국력이 증강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김태훈, 앞의 논문, 165쪽.

11) 荒木和憲, 『‘임진전쟁’의 강화교섭』, 『세키쿠치 클러벌 연구회』 발표문, 2018년 8월, 6쪽.

12) 1601년 단계까지 이에야스가 조선외교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즉 1601년 7월 대마도의 강화요청에 대해서 조선은 “그들이 우리 나라와 通好하고자 하는 것은 至誠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우리 나라에서도 끝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款使가 오고 난 뒤에 비로소 강화를 허락해야 합니다.”라든가 “이번 평조신의 書契가 비록 家康을 칭탁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름을 차용하여 중하게 보이려는 것에 불과할 뿐 정작 그 자신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즉 1602년부터 대마도가 공격적으로 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야스나 히데요리측과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선조실록』 권199, 34년 7월 을묘 (20일).

그 결과 1602년 2월 전계신·손문옥을 정보수집과 강화 제의 여부 확인을 위해 대마도로 파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602년 대일관계에 큰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이 시기부터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강화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대마도에 대해서도 규모는 작지만 부산에서 개시무역을 할 것을 조선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다.

상술하면 1602년 6, 8월과 11월, 2개월 간격으로 서계를 지참한 대마도는 집중적으로 조선에 교섭을 요청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에야스가 강화교섭 일체를 자신들에게 위임했다는 점을 일층 강조하고, 피로인 송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신사’ 파견을 요구한 것이다. 전쟁 종결 4년 후인 1602년 단계에서 대마도가 정식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마도가 7, 8월 피로인 104명, 229명을 집중적으로 송환해 오자, 밀무역 및 기밀 누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선은 그들이 상품으로 지참해 온 조총, 목단 등을 공무역으로 구입했던 것이다. 이것은 공무역 장소가 한성에서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사무역 장소도 부산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근세 일본 무역의 기본 틀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처럼 조선은 일본 측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일본과의 국교 재개는 시대적인 추이이며 국내 사정상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마도에 대한 불신감과 이에야스나 히데요리(秀頼, 히데요시의 아들) 중 누가 더 절대적인 통제력과 실권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04년 7월, 조선은 四溟大師와 孫文彥을 探賊使로

13) 굴지정이 가지고 온 물건은 조총 10정, 산달피(山癩皮) 16속(束), 단목(丹木) 15근, 오적어(烏賊魚) 70속 등이었다. 『선조실록』 권 152, 35년 7월 기사(10일).

파견하였다. 이 일행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에야스의 강화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탐적사 일행은 대마도를 거쳐 교토에서 이에야스와 히데타다(秀忠)를 만났다.¹⁴⁾ 그 결과 조선과의 강화 문제에 이에야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본 국정을 탐색하면서 탐적사 일행은 이듬해 4월에 귀국했다. 이로써 일본과의 국교 회복 문제에 많은 논쟁도 있었으나 조선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통신사 파견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은 탐적사 파견과 동시에 대마도의 한성 上京 금지와 부산에서 互市(공무역과 사무역) 허락, 서계의 왕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를 창구로 한다는 점을 명하였다. 그러자 대마도 측은 조선과 교역이 성립되었다고 인식하여 탐적사를 후시미까지 안내했던 것이다. 이처럼 1604년 단계에서 부산 왜관을 무대로 하는 근세 조·일 무역 통교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⁵⁾

1607년 정식으로 국교 재개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은 대마도가 통교를 요구한 지 오래되었다는 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포로 쇄환을 적극적으로 해 온 점, 그리고 대마도의 태도가 히데요시 시기와는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¹⁶⁾

한편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국교 재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탐적사를 통해서 이에야스의 국교 재개 의사와 국권 장악력 여부는 파악했으나 그의 명의로 된 공식적인 서계 한 장 없이 국교를 재개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련의 일들이 대마도 측의 책략이라는 의

14) 仲尾宏,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鎖國」史觀を越えて』, 明石書店, 2006, 34쪽.

15) 여기서 말하는 ‘근세 조·일 무역 통교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역 공간과 무역횟수, 세전선, 세사미두 등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임란 전 3포였던 개항장을 부산 한곳으로 확정하여 부산왜관 시대를 열었다는 점과 사신들의 체류장소가 한성이 아닌 부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위사가 아니라 접위관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근세 조일무역 통교의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다.

16) 특히 탐적사의 귀국을 전후로 해서 1390명 정도의 피로인이 송환되었다.

구심이 적지도 않았다. 즉, 임란 이후 화친을 요구해 온 것은 현소·宗義智 등의 대마도 측 무리이며, 몇 년 동안 왕복하면서 이에야스의 서계(標信)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신사 파견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606년 4, 5월 단계에 들어서면 통신사 파견 문제와 이에야스의 국서 문제가 첨예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조정에는 두 부류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 부류는 일본이 물러가고 강토를 회복 한지 이미 8-9년이 되었지만, 정벌할 준비도 갖추지 못하면서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정황을 거론하면서, 통신사 파견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주장한 경우이다.¹⁷⁾ 즉, 국방 대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대마도가 피로인을 적극적으로 쇄환하고 정성을 보이는 데 교섭을 미루기만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침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파악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부류는 화친에 관한 일이 이에야스 견해인지 정확히 알 아볼 방법도 없고, 宗義智나 景直 등 대마도 측이 假託한 것인지 진위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통신사 파견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극심한 와중에 다른 견해도 나타났다. 즉, 대마도가 자기들의 과오(조선 침략에 앞장 선 것과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의 반대편에서 전투한 부분)를 미봉하려는 술책이든, 이에야스가 우호 수립을 촉구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사실 이든, 이러한 사실들을 이에야스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¹⁸⁾ 이전과 달리 당시 조선의 취약한 국방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현실적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17) 『선조실록』 권199, 39년 5월 갑술(7일).

18) 『선조실록』 권198, 39년 4월 계묘(5일). 이외에도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비록 이에야스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조선 백성을 위한 계책으로 우선 그들과 통호하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606년 5월경이 되면 조선 내부에서 국교를 재개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대마도가 서둘러서 화호하기 위해 능을 범한 범인을 잡아 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갖기 시작했다.¹⁹⁾

그러나 선조를 비롯한 신중론자들은 국교 재개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야스의 서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신 파견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결국 일본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서 차관을 보내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6월 손문육과 박대근이 부산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국교 재개의 전제조건인 ‘이에야스의 서계’와 ‘犯陵賊’ 송환 문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은 냉담하였고 고 조선이 요구한 2개 조건을 거부하였다.²⁰⁾

이후 통신사 파견을 둘러싼 최후의 담판을 짓기 위해 전계신 일행은 다시 대마도로 갔고, 8월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에야스 국서의 송부 및 犯陵賊 송환에 대한 일본 측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에야스 국서(內府謄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전 검토하였다.²¹⁾ 이들은 국서 내용이 조선에 대해 불손하고, 왕릉범 압송에 대한 언급이 없자 수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이에야스 국서가 대마도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선은 회답사를 파견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다. 즉, 국교 회복의 조건이 충족

19) 『선조실록』 권199, 39년 5월 갑술(7일).

20) 대마도 측은 “1604년 탐적사 일행인 송운대사와 손문육이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에야스의 호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야스의 국정 장악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며 강한 반발을 하였다. 『선조실록』 권200, 39년 6월 계해(26일).

21) 『선조실록』 권203, 39년, 9월 기묘(13일). 전계신은 8월 17일 대마도 豊岐에 도착한 날부터 24일까지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보고하고 있다. 특히 왜인들과 문답한 것을 중심으로 이에야스가 보내온 국서(內府謄書) 내용과, 대마도와 조선 간에 왕래했던 서계를 인용해 이에야스의 국서 진위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荒木和憲, 『‘임진전쟁’의 강화교섭』, 『세키쿠치 글러벌 연구회』 발표문, 2018, 15쪽.

되었는데 회답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국교 회복 교섭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犯陵賊 송환과 관련해서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인정하자는 견해조차 나타나기 시작했다.²²⁾

결국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본이 받아들였다고 파악한 조선은 1606년 10월 회답사로 여우길을 일본 정사로 결정하였다. 사절 명칭에 대한 논쟁은 회답사가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11월 2일 이에야스의 국서가 도착하였고, ‘犯陵賊’을 신속하게 처단하면서 전략적인 해결을 보았던 것이다.²³⁾

드디어 1607년 1월 4일 회답겸쇄환사라는 명칭이 책정되고, 13일 한성을 떠난 사신 일행은 2월 대마도에 도착했다. 이로써 임란 이후 공식적인 사절이 일본에 파견됨으로써 국교 재개가 시작된 것이다.

화제를 바꾸어서 회답겸쇄환사 명칭을 건의한 비변사의 건의 내용을 통해 사행의 일본 파견 목적을 다면적으로 살펴보자.

삼가 전후의 비망기를 보건대, 이번 사신의 사행에 우리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쇠환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늘 같고 부모 같으신 마음이니 듣고 보는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구구히 이 일을 거행한 것도 생령들을 위해 왜적에게 굽힌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쇠환을 중하게 여겨 사신의 호칭을 쇠환사로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단히 먼저 사신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고 저들이 서계(書契)를 보내온 것을 인해서 회답하는 것이 사체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조정

22) 『선조실록』 권202, 39년 8월 기미 (23일).

23) 선조는 “眞僞를 막론하고 국문해 본 다음 그 정상이 과연 진범이면 바로 獻俘禮를 거행하여 종묘에 고해야 할 것이고, 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또한 적이니 바로 斬首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은 광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야 하니 의심을 갖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40, 39년 11월 병인 (1일).

에 아뢴 가운데에도 ‘가강(家康)이 하는 것이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 헤아리지 못하겠고 결박지워 보내온 왜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저들이 이미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왔으니 신으로선 회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회답이란 두 글자를 완전히 빼버리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회답 겸 쇠환사(回答兼刷還使)라고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²⁴⁾

위의 사료를 보면, 피로인을 쇠환하고 일본의 국내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 사행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는 ‘통신’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며, 이에야스 국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측이 먼저 서신을 보내와서 이에 대한 ‘회신’으로 국서 및 사신을 보낸다고 강조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통신사’ 대신 ‘회답겸쇠환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 “이에야스의 요청에 화답함으로써 긴장은 완화시키되, ‘피로인 쇠환’이라는 전후 처리를 국교 회복 명분으로 내세워 양국의 ‘통신’ 관례를 되도록 뒤로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주목을 끈다.²⁵⁾ 즉, 통신사를 정례화 하면 조선 국내의 피폐해진 사정과 경제·군사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오히려 ‘통신사’ 대신 임시 방편으로(?) ‘회답겸쇠환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당시 사신 파견 목적이 회답 및 피로인 송환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조선 국내의 사정은 물론이고 다분히 명 조정을 의식한 사신 명칭은 임란 직후 처음으로 적국 일본에 보내는 사신 파견에 많은 고심과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명과 일본 양국을 의식하여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借重之計’의 일환

24) 『선조실록』 권207, 40년 1월 기사(5일).

25) 이훈, 앞의 논문, 293~294쪽.

으로 사행 명칭을 ‘회답겸쇄환사’로 정했던 것이다.²⁶⁾

일본에 도착한 회답겸쇄환사 일행은 1607년 5월 6일 에도성에서 국서 전달을 하였고, 20일에는 개축 중인 슌뿌(駿府)성에서 이에야스를 만났다.²⁷⁾ 이때 피로인 쇄환 결정 방침을 이에야스로부터 이끌어 내면서 1410명 정도의 피로인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임란 이후 일본으로 처음 파견된 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 일행은 조선 국왕의 회답 국서를 전달하면서 ‘명분 없는’ 전쟁의 전후 처리를 매듭지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피로인의 송환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함으로써 교린 관계의 내실을 기하고, 피해를 입은 조선 사회 민심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왕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회답과 쇄환이라는 명분과 함께 결국 제1차 회답겸쇄환사는 일본의 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정치·외교사절’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과 에도막부의 입장

히데요시가 사망한 1598년 이후, 이에야스는 五大老의 핵심 인물로서 일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후방에서 진두지휘하였다. 두 번에 걸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일본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이러한 국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역을 통해

26) 이와 관련해서 조선은 이미 1604년 5월부터 明이 조·일 교섭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이 자주적,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先行後報’ 방침을 전달받은 시기였다. 지금까지 일본과 교섭 문제에 당면했을 때, 명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했던 입장에서 명의 정책 전환으로 일본과 어려움 없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을 의식해서 신중하게 사행 명칭을 결정했던 것이다.

27) 鄭章植, 『使行錄に見る朝鮮通信使の日本觀』, 明石書店, 2006, 38~42쪽.

서 자신의 재정을 확보하면서 히데요시가 장악하고 있었던 외교권과 무역권을 계승하여 국가 주권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⁸⁾九州지역 다이묘들의 교역 활동을 견제하거나, 琉球 왕국을 중개로 일명 무역을 재개하려 했던 점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사후 확실한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히데요리(秀頼, 히데요시의 아들)의 가신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 기간 주종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야스의 영향력은畿内와 京都 근처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당시 히데요리와 유력한 다이묘들, 그리고 교토에 있는 천황을 비롯한 朝廷과 公家 세력들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집단으로서 건재했었다. 1599년에 발생했던 ‘三成습격사건’이나 히데요시가 유언했던 정책과 법령을 위배했다며 발생한 ‘起請文 발급 사건’은 이에야스의 반발 세력이 적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²⁹⁾

한편 대마도의 경우에도 전쟁은 끝났지만 과거 히데요시를 통해 영지 安堵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야스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된 관계는 아니었다. 나중에 탐적사 일행과 교섭을 성공시킨 공으로 1605년 이에야스한테서 2만 8천석을 加贈받았고, 참근교대도 3년에 한 번으로 실행하라는 특전을 받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소원한 관계였다.³⁰⁾

다시 말해서 종래의 연구처럼 이에야스는 五大老로서 절대적인 권력 중심에 서 있지 않았으며, 히데요시 사후 확실한 지배권도 확립하지 못

28) 이 장과 관련된 내용은 좋고,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徳川家康』(『중앙사론』 44, 2016)과 『전쟁의 과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학회』 57, 2017)를 주로 참조하였음.

29) 北島万次, 『加藤清正-朝鮮侵略の實像』 吉川弘文館, 2007, 198~201쪽. 谷徹也, 『秀吉死後の豊臣政権』, 『日本史研究』 617, 2014, 22~25쪽. 水野伍貴, 『秀吉死後における家臣間の對立構造と推移』, 『戦國・織豊期の諸問題』, 歴史と文化の研究所, 2018.

30) 『通航一覽』 권 27. 조선국3, 慶長10년.

했다.³¹⁾ 히데요시 죽음이 비공개된 상황과 五奉行 등이 큐슈에 내려가畿内 지방을 비운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五大老의 정점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히데요리의 의사를 다이묘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쳤고, 다수의 다이묘도 히데요시 시기에 배당 받은 영지가 대부분이어서 이에야스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다.³²⁾ 임란 직후 대마도가 조선에 요구했던 대부분의 교섭 요구는 明・日 양국의 인질 교환이었고, 이에야스의 영향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1601년, 이에야스는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도항하는 商船에 대해 朱印狀을 발급하면서 해외무역을 통제하였다.³³⁾ 주인선 무역의 시작인 것이다. 또한 1602년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필리핀 총독에게 멕시코와 통교하기 위한 기항지를 관동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³⁴⁾ 소위 에도막부를 ‘大通商國家’로 만들려는 시도였다.³⁵⁾

31) 矢部健太郎, 『關カ原合戦と石田三成-敗者の日本史12』 吉川弘文館, 2014, 173-176쪽. 堀越祐一, 『「五大老」「五奉行」の成立と政治構造』, 『豊臣政権の権力構造』 吉川弘文館, 2016, 124-159쪽. 山本博文外, 『豊臣五大老の實像』, 『豊臣政権の實體』 柏書房, 2014, 293-328쪽. 津野倫明, 『蔚山の戦いと秀吉死後の政局』, 『ヒストリア』 180, 2002.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요토미씨의 영지는 대폭 감소했지만 영지 재분배 결과 이에야스가 전적으로 신임하기 힘든 外様다이묘들에게 오히려 영지가 대폭 늘어나, 西國지방의 다이묘들 세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32) 1617년 히데타다는 군사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후 여러 다이묘와 공가, 문적과 사원, 신사에 영지 지배를 허가하는 영지 주인장을 처음으로 교부하였다. 막부가 성립된 지 17년 만에 전국의 다이묘를 대상으로 하는 ‘武家諸法度’와 여러 가지 ‘法度(법규)’도 만들어졌다. 이처럼 이에야스 死後 1년 뒤인 1617년에 들어서야 에도막부의 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3)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ルッシュ-銀と戰國の流通革命-』, 歴史文化ライブラリ-404, 2015, 194~197쪽.

34) 安野久, 『關ヶ原前役前における徳川家康とフィリピンとの交渉-ロ・マイエズ會文書による-』, 『キリスト教史學』 28, 1974, 48쪽.

35) 渡邊美季, 『近世琉球と中日關係』, 吉川弘文館, 2012, 65~132쪽.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정유재란이 끝난 직후부터 세키가하라 전투(1600) 발발 전까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외교·무역보다 오히려 큐슈 지역의 외국선 관리 및 무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조선과의 강화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냉전 상태가 지속되자 국교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 조선과의 국교 재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부터 대마도를 통해서 국교 회복을 실현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隣國인 조선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침략 위험을 해소하고, 국내 안정과 무역 독점 및 정권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계획했던 것이다.³⁶⁾ 이것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이에야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예를 들어 1602년 그는 對馬守의 宗義智에게 히데요시가 조선정벌을 한 뒤 양국의 교류가 단절되고 조선의 원한도 깊겠지만, 이제는 서로 교류함이 타당하므로, 선제적으로 조선과 국교재개해야 한다고 했다.³⁷⁾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전술한 것처럼 대마도가 1602년 정식으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한 때이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일본의 국내사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상황이 통신사(회답검쇄환사) 파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6) “異國のうち朝鮮は最も近い隣國であり、善隣が道理である。朝鮮に明朝を共同して復讐の擧があれば、幕府は苦境に立つし、和好を結べば、幕府の權威は異國にも達し、かつ國內緒候の統制にも益するようになる。また隣交により彼我の政情も理解しあい、日本の武勇の盛んなる様も明朝に達し、これは保國永久の策になる” 『隣交始末物語』,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集刊, 11-3, 雨森芳洲全書3 關西大學出版部, 1982.

37) “慶長七壬寅年, 宗對馬守義智, 江戸二伺候シケル折節, 家康仰ニ云, 太閤秀吉, 朝鮮征伐ノ後, 兩國ノ交リ斷絶セリ, 當代朝鮮ニ對シ更ニ遺恨ナシ, 彼方和睦望アラバ御許容ナルベシ” 規伯玄方, 『方長老九上覺書』, 『古事類苑』, 三宅英利, 『近世アジアの日本と朝鮮半島』, 朝日新聞社, 1993, 17~22쪽.

이에야스는 1602년 5월부터 후시미에 ‘니조성(二條城)’을 축성한다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곳을 ‘公儀’의 중심지로 삼으려 했다.³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城 축조를 ‘天下普請’이라는 명분으로 工事성격을 바꾼 것이다. 즉, 지금까지 성을 축조할 때는 해당되는 가문이 자신들의 집안 인력을 동원했었고, ‘天下普請’은 최고의 권력자인 히데요시만이 할 수 있었던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에야스는 자신의 교토 거처를 만드는데 軍役을 부과했던 것처럼 전국의 여러 다이묘들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즉, 이에야스는 더 이상 豊臣大名 중의 한 家臣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후계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³⁹⁾

그런데 대마도 측은 ‘二條城’ 축성 명령 소식을 접한 지 한 달 뒤인 1602년 6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대량의 조선 피로인을 보내면서 강화 교섭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야스의 위상을 직감하고, 이러한 상황과 연동되어 11월에 정식으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603년 2월 이에야스는 정이대장군으로 취임하면서 에도막부를 열었다. 장군직으로 취임하자마자 3월 그는 1차 에도성 시가지 조성 및 확대 공사를 단행하였다. 이 공사 역시 전국의 다이묘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무가의 동량은 히데요리가 아니라 자신이며, 전국 영토의 영주권도 본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 해는 다이묘의 영지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파악하려는 ‘國繪圖’ 제출을 의무화하였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외교의 창구로 대마도

38) 이 곳은 이에야스의 공식적인 교토 거처로서 훗날 에도막부 시대 권위의 상징인 곳이 다. ‘公儀’란 쇼군이 주도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39) 小和田哲男, 『北政所と淀殿』, 吉川弘文館, 2009. 160~164쪽.

40) 國繪圖는 장군 취임 1년도 안 된 이에야스가 1604년 다이묘들에게 拜領했던 지역의

를 적극 활용하면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과의 교섭 시도는 히데요시가 남긴 대외적인 과제를 청산해 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 있는 반이에야스 세력을 상대로 막부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1603년에 들어서자 국내 위상이 올라가고 동아시아 무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은 피할 수 없는 당면 문제로 인식하였고, 대마도를 조선 외교의 대리자로서 실무를 전담시켰던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1604년 12월 탐적사인 사명대사(유정)가 京都에 도착하였고, 1605년 3월 이에야스는 후시미에서 이 일행을 맞이한다. 이때 “자신(이에야스)은 임진년에 관동에 있었으며 자신의 군사는 한 명도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使行을 예우하면서 和好를 요구했다.⁴¹⁾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대화를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주권자는 본인이며 자신은 조선과 교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조·일간에 국교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성립되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1605년 4월 이에야스의 아들인 히데타다(秀忠)가 2대 장군으로 즉위하였고, 5월말 탐적사 일행은 피로인 1390명을 쇄환하여 귀국했다.⁴²⁾ 그런데 1606년에 들어서면 에도막부의 국내 정치 상황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같은 해 3월 이에야스는 대대적인 제2차 에도성 증축과 슌뿌

논과 밭 생산량을 적은 郷帳·郡名·村名·村高·道川 등을 제출하게 한 것이다. 2년 동안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자신의 정권이 도요토미 정권의 뒤를 이은 정통한 지배자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권위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本多隆成, 『定本 徳川家康』, 吉川弘文館, 2019, 206~207쪽.

41) 仲尾宏,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鎖國」史觀を越えて』, 明石書店, 2006, 34쪽.

42) 이 일은 이에야스가 정대장군이 된지 2년 2개월 뒤에 생긴 일로, 장군직이란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徳川家が 세습하는 것이고 豊臣씨한테로 정권을 되돌릴 생각이 없음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었다. 즉, 장군직 양위라는 치밀한 정책을 세워 에도막부를 안정시키고 권력 계승을 공식화하려 했던 것이다.

성 축성 명령을 내린다.⁴³⁾ 3년 만에 다시 에도성 수리를 명하면서 공사에 西國 지역의 다이묘들까지 동원하였다. 이후 5층 천수각 조영에는 關東·甲信越·奥州 지역의 다이묘도 사역시켰다. 물론 이번에도 ‘天下普請’ 명분으로 진행했으며, 1606년과 16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사로 에도성은 대 성곽의 형태를 갖추면서 장군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둘째는, 1606년 4월 이에야스는 무가의 권위를 에도막부 추천 없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後陽成天皇에게 주청한 것이다. 즉, 京都를 방문한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의 측근 인사가 武家 官位에 마음대로 승진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에도막부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것은 에도막부가 천황가와 상호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무가의 권위 제도까지 장악하여 도요토미 정권을 추종하는 잔존 세력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⁴⁴⁾

이처럼 1606년 초기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정치 상황을 회담검쇄환사의 파견 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주목되는 부분이 많다. 즉, 1606년 4월과 8월 중에 실린 『선조실록』을 살펴보면, 이에야스가 대마도 측에 강화 요청을 재촉하고 있는 기사가 속출한다. 물론 이것을 대마도가 이에야스의 권위를 빌려서 통신사 파견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면밀하게 정황을 검토하면 에도성 공사를 전후로 통신사 도일을 재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같은 해 4월 기사를 보면 “평의지와 景直 등이 통신사를 요구하면서 심하게 재촉하고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다.”든가, “家康이 굴

43) 1607년 5월 20일, 회담검쇄환사는 에도에서 2대 쇼군을 만난 후 이에야스를 슌뿌성에서 만난다. 귀로에 조선 사행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1606년 3월 단계에서 이미 슌뿌성 축성 명령을 내렸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4) 池上裕子, 『織豊政權と江戸幕府-日本の歴史』, 講談社, 2002, 358~359쪽.

지정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누차 물어본다.”는 부분이 있다. 5월에는 “대마도의 왜가 家康은 수길이가 행한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했으니 和를 맺자고 催迫이 급하다.”든가, “8월 며칠 화친 사신으로 하여금 바다를 통과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마도 사람들이 매우 급하고 간절하게 통신사 파견을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적혀 있다.⁴⁵⁾

다시 말해서 에도성 증축 시기와 통신사 파견 요청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에도는 막부 권력의 심장부이며 전국 무사 세력의 중심지이다. 1606년은 도요토미 정권과 차별성도 생겼고, 장군의 승계 문제도 마무리된 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에도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장군 권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해 조선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에야스는 이 시기야말로 隣國인 조선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침략 위험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에도막부 장군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절호 기회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화제를 바꾸어서 이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에야스의 국서(內府膺書)’ 및 ‘犯陵賊 송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야스는 1606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親豐臣系 다이묘들이 西國 지방(규슈)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묘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통제를 가하였다. 1606년 전후까지도 대마도는 막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막부의 印章을 위조하여 국서를 제멋대로 만들 수 있는 정황은 아니었다. 새롭게 등장한 막부를 대상으로 위협천만한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었으며, 막부 또한 대마도를 전적으로 신

45) 『선조실록』 권198, 39년 4월 계묘(5일). 同 권198, 39년 4월 임술(24일). 同 권199, 39년 5월 갑신(17일). 同 권201, 39년 7월 신미(4일) 참조.

뢰하여 외교 문제를 일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굴지정이 이에야스 총신인 政純(本多正純)의 도움으로 이에야스의 국서를 얻어 냈다”고 한 점, “거짓 글을 만들어 내면 뒷날 조선의 회답에 어찌하겠는가”하고 반문한 점, “우리 섬(대마도)이 중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어찌 이제까지 이 일을 끝내지 못하였겠는가”, “내부(이에야스)가 고쳐 주려 하지 않으니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등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이에야스가 조선에 보낸 국서를 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⁴⁶⁾ 대마도가 전적으로 위조를 했다면 오히려 국서를 둘러싼 조선 측과 마찰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도성·슨뿌성의 축조, 무가의 권위 제도 장악, 國繪圖 실시 등 국내 정치권력을 강화하려는 상황과 연동되어 이에야스는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려 했으며 그 전제로 통신사 파견을 재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조선이 요구한 자신의 국서 요구와 犯陵賊 송환문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607년 1월 회답겸쇄환사는 京都의 대덕사에 도착하였고, 윤 4월 일행은 히데타다를 만나 외교적인 의례를 마치고 7월에 귀국하였다.

IV.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의 활동

임란 후 일본에 파견된 사행에 대해 에도시대는 대부분 ‘朝鮮來聘使’, ‘朝鮮御禮使’로 기록되었다. 500여명으로 구성된 통신사 일행은 평균 6~8개월에 걸쳐 대마도에서 에도까지 약 22개의 藩을 통과하였다.⁴⁷⁾

46) 『선조실록』 권 203, 39년, 9월 기묘(13일), 임오(16일) 참조.

일본의 대도시인 에도·교토·오사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왕래하면서 막부의 관리·지식인·문화인과 교류하였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異國 문화를 전달하였다.

임란 직후 일본과의 국교재개, 피로인 송환, 교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통신사행은 회답검쇄환사를 포함해서 12차례였다. 이때 파견된 통신사는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양국의 정치 정세가 안정되고, 외교 관계도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통신사의 정치적 의미는 감소되고 국서 교환이라는 의례적인 외교 행위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화 교류라는 부수적인 기능이 양국에서 중시되면서 통신사 활동이 차츰 변화해 갔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만 해도 통신사는 회례나 보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후기에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막부 장군의 습직, 긴급한 외교 문제 해결, 피로인 쇄환, 일본의 군사 정보 확보, 문화 교류를 위해 파견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측 통신사 연구는 ‘문화사절’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조선은 병자호란(1636년) 이후 재편된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쪽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적 우월감에 바탕을 두고서 문화적인 계도를 통해서 일본의 문명화를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침략성을 순화시킨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통신사를 ‘문화사절’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⁴⁷⁾ 반면 일본은 통신사를 맞이함으로써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47) 1764년의 경우에는 왕복 기간이 1년 걸렸다. 이는 ‘최천중 피살 사건’으로 예외적인 경우로, 평균 6~8개월에 걸쳐 사행이 왕래하였다.

48) 岩方久彦, 앞의 논문, 105~132쪽.

공인받고 국내 여러 다이묘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절’로서 주목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의 원형이 된 회답겸쇄환사를 시작으로 조선의 국내외적인 사정과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를 목적에 따라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 <교린 관계 안정기>,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 단계로 구분하여 정치사절, 외교사절, 경제사절, 문화사절로서의 사행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

연대	연대		정사 (正使)	부사 (副使)	총 인원	사행기록	빙례목적(聘禮目的) [조선 측 의도] 및 기타
	서기	조선/일본 간지					
1607	선조40 /秀忠 게이초 (慶長)12	정미 (丁未)	여우길 (呂祐吉) [癡溪]	경심 (慶暹) [七松]	467 (100)	경심, 《해사록》	국교회복 [왜정 탐색, 피로인 쇄환]
1617	광해 9 /秀忠 겐나 (元和)3	정사 (丁巳)	오윤겸 (吳允謙) [楸灘]	박재 (朴粹) [雲溪]	428 (78)	오윤겸, 《동사상일록》 박재, 《동사일기》 이경직, 《부상록》	오사카(大坂) 평정 축하 [위와 같음]
1624	인조 2 /家光 간에이 (寬永)1	갑자 (甲子)	정립 (鄭立) [道村]	강홍중 (姜弘重) [道村]	460 (114)		이에미즈(家光) 습직축하 [위와 같음]
1636	인조14 /家光 간에이 (寬永)13	병자 (丙子)	임광 (任統) [白麓]	김세렴 (金世濂) [東溟]	478 (불명)	임광, 《병자일본일기》 김세렴, 《해사록》 황려, 《동사록》	태평 축하 [왜정·신 통교체제 확인] *닛코산(日光山) 참여

1643	인조 21 /家光 간에이 (寬永)20	계미 (癸未)	윤순지 (尹順之) [溍溍]	조동 (趙綱) [龍洲]	477 (불명)	조경, 《동사록》 신유, 《해사록》 작자 미상, 《계미동사록》	세자이에즈나 (家綱)탄생축하· [왜정탐색] *닛코산(日光山), 치제(致祭)
------	-------------------------------	------------	----------------------	--------------------	-------------	---	---

<교린 관계 안정기>

연대	연대		정사 (正使)	부사 (副使)	총 인원	사행기록	빙례 목적(聘禮目的) 및 [조선 측 의도] 및 기타
	서기	조선/일본 간지					
1655	효종6 /家綱 메이레키 (明曆)1	을미 (乙未)	조형 (趙珩) [翠屏]	유석 (兪瑒) [秋潭]	485 (100)	조형, 《부상일기》 남용익, 《부상록》	이에즈나(家綱) 습직 축하 *닛코산(日光山)참예
1682	숙종8 /綱吉 덴나 (天和)2	임술 (壬戌)	윤지완 (尹趾完) [東山]	이언강 (李彦綱) [鷺湖]	473 (113)	김지남, 《동사일록》 홍우재, 《동사록》	츠나요시(綱吉) 습직 축하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

연대	연대		정사 (正使)	부사 (副使)	총 인원	사행기록	빙례 목적(聘禮目的) 및 [조선 측 의도] 및 기타
	서기	조선/일본 간지					
1711	숙종 37 /家宣 쇼토쿠 (正德)1	신묘 (辛卯)	조태억 (趙泰億) [平泉]	임수간 (任守幹) [靖菴]	500 (129)	조태억, 《동사록》 김현문, 《동사록》 임수간, 《동사록》	이에요시(家宣) 습직 축하 아라이하쿠세키 [新井白石]의 개정 (대군→국왕)
1719	숙종 45 /吉宗 교호 (享保)4	기해 (己亥)	홍치중 (洪致中) [北谷]	황준 (黃濬) [鷺汀]	475 (109)	홍치중, 《해사일록》 신유한, 《해사록》 정후교, 《부상기행》 김웅, 《부상록》	요시무네(吉宗) 습직 축하 아라이하쿠세키 [新井白石]의 개정을 이전상태로 환원 (국왕→대군)

1748	영조24 /家重 엔쿄 (延亨)5	무진 (戊辰)	홍계희 (洪啓禧) [澹窩]	남태기 (南泰耆) [竹裏]	475 (83)	조명채, <<봉 사일본시견문 록>> 홍경해, <<수사일록>> 작자미상, <<일본일기>>	이에시게(家重) 습직 축하
1764	영조 40 /家治 호레키 (寶曆)14	갑신 (甲申)	조엄(趙 曠) [濟窩]	이인배 (李仁培) [吉菴]	477 (106)	조엄, <<해사일기>> 오대명, <<게미사행일 기>> 성대중, <<일본록>>	이에하루(家治) 습직 축하 최천중(崔天淙) 피살
1811	순조 11 /家齊 분카 (文化)8	신미 (辛未)	김이교 (金履喬) (竹里)	이면구 (李勉求) (南霞)	328 (불명)	유상필, <<동사록>> 김청산, <<도유록>>	이에나리(家齊) 습직 축하 (상사: 오가사와라 다다카타(小笠原忠固) · 와키사카 야스타다 (脇坂安董代行) 대마역지통신

()는 오사카 또는 교토 대기자

1607년부터 1643년까지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행들은 정치사절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1607년에는 국교회 북, 1617에는 오사카 평정 축하, 1624년에는 에이미츠의 장군 습직의 축하, 1636년에는 일본의 태평 축하, 1643년은 에이미츠의 후계자인 이에즈나(家綱)의 탄생 축하를 위한 명분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특히 초기 3차례 파견된 회답겸쇄환사는 ‘조선 국왕에의 사죄’와, ‘피로인 쇄환’을 목표로 파견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시기 통신사들의 활동은 일본 탐색과 피로인 송환에 집중되었다.

또한 1624년 ‘이괄의 난’이 발발하여 서울까지 점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 전후로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여파로 국내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때는 사신 명칭이 ‘통신사’로 변경되면서

서 일반적으로 조·일간의 통교체제가 확립되었고 안정된 교린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통신사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통신사의 파견 목적이 1643년까지 일본 탐색과 피로인의 송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1643년 통신사 파견은 명·청 교체기라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안정으로 군사 안보 부담을 덜어 보려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⁴⁹⁾

결국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에 해당하는 통신사는 장군습직 축하사절로 아직 정례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정치 및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맞추어서 파견된 정치사절이 대부분이었다. 명목상은 피로인의 송환을 내세운 사절이었지만, 실제 초기 3차례의 쇄환사가 송환해 온 사람은 2000여명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1643년 통신사 귀국 시 에도·교토·하카다·히젠·나고야 등에서 데려온 피로인은 14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⁵⁰⁾

한편 통신사 파견 명분이 장군습직 축하사절로 정례화 된 시기는 <교린 관계 안정기>에 해당하는 1655년부터 1682년까지이다. 1655년 통신사 파견에 앞서 당시 효종은 “일본은 우리와 수호한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조일 양국 간에 긴급한 외교 현안이 없어지자 통신사 파견은 국서교환이라는 의례적인 외교 행사

49) 이훈, 『병자호란 이후 1643년의 계미통신사 파견과 대일본외교·외교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2018 한일문화교류기금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8년 11월, 164~166쪽. 이후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한일문화교류기금편, 경인문화사, 2019, 225~228쪽으로 출간됨.

50) 회담겸쇄환사와 대마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로인 송환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피로인의 개인사정, 송환 관련된 경비를 대마도가 부담한 점, 이에 야스 정권의 권력기반 약화 등이 있었다. 1차 쇄환사는 1420명, 2차는 321명, 3차는 146명 정도 피로인을 송환했다.

로 정착되어 갔다.

즉, 1655년에는 이에즈나(家糠)의 직위 승계 축하, 1682년에는 츠나요시(綱吉)의 직위 승계 축하를 위한 통신사 파견이 있었다.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에서는 三藩의 난이 진압되는 등 정치정세가 안정되고 조·일간의 외교관계도 평화적으로 정착되면서 통신사의 정치적 의미는 점차 감소하였다. 여기에 문화 교류라는 부수적인 기능이 1655년 통신사 시기부터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때에 필담 창화를 담당하는 서기의 인원수를 증가시킨다거나, 1682년 통신사부터는 필담을 책임졌던 제술관의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등 조·일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본격화 되었다.⁵¹⁾ 다시 말해서 <교린 관계 안정기> 통신사의 역할은 의례적인 외교 행사와 문화 교류가 중심이 되었다.

한편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에 해당하는 통신사는 1711년 이후에 파견된 사행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시기를 교린 외교의 안정기로 보고 있으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1711년부터 대마역지통신(對馬易地通信)이 있었던 1811년까지 5차례의 통신사 파견이 있었다. 시대마다 파견된 목적과 성격은 다소 상이했지만, 1711년과 1719년에 파견된 통신사는 이에노부(家宣)의 장군습직 축하와 요시무네(吉宗)의 직위 승계 축하 명목으로 渡日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잘 알다시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에 의해서 지금까지 장군 직위 승계 축하라는 명목으로 지속되어 왔던 외교 의례 문제를 평등 의례, 일본의 왕권 및 문화의 과시, 경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개혁하려 했던 시기이다.⁵²⁾ 즉, 통신사의 영접 사례와 의례 방식에

51) 하우봉,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9, 2018. 161~162쪽.

52) 하쿠세키는 자신이 주장했던 빙례를 마친 후, 통신사 사행과 관련해서 대등하면서도 최대한 간소한 의식을 대마도에서 거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의했다. 대마역지빙례가 거행되기 1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견해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해 일본 측이 외교 개혁을 제시했던 것이다. 개혁 내용 중에 ‘일본국 왕’ 칭호 문제나 국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⁵³⁾ 그가 개혁에서 보여준 자세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것이어서 일본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그가 제시한 개혁 내용은 이후 모두 취소되고, 1719년 통신사는 예전의 방식대로 거행되었고 더 이상 커다란 분쟁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초반부터 조선과 외교의례 문제로 통신사 파견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선은 막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교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전략으로 임했다.⁵⁴⁾

또한 1748년과 1764년 통신사 파견부터는 재정 및 무역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최근 연구에 의하면 1748년 통신사가 파견되기 2년 전부터 대마도는 관백(장군) 은거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장군 습직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였다⁵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대마도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통신사 파견을 재촉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16세기부터 조선에는 일본의 은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비로 충당된 명의 은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⁵⁶⁾

53) 민덕기, 『아라이 하쿠세키의 조선과의 빙례 개혁 의도』,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朝·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378~417쪽.

54) 당시 17세기 후반인 1670~71년(현종11~12년)과 1695~99년(숙종 21~25년) 조선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수많은 飢과 전염병 환자,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으므로 통신사 파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의례적인 외교사행으로 진행하려 했다.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1997, 39~47쪽.

55) 田阪正則, 『關白退休告知差倭(1746년)을 둘러싼 朝日間交渉』,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 223~229쪽.

정묘·병자 양란과 명·청 왕조교체의 여파가 마무리된 17세기 후반 이후 은 사용이 증폭되었다. 그 배경에는 왜관을 통해 일본 은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1650년경부터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인삼과 은의 교역은 대마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에 은을 지불하고 들어온 인삼과 생사, 비단을 일본의 주요 도시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조선에게서 확보한 쌀(公作米)은 대마도 경제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1695년 막부는 재정 해결 방법으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유통되고 있던 순도 80%의 慶長銀을 대신해서 새로운 은화를 발행하였다. 일본 은화의 순도 문제로 조선과 일본, 청을 둘러싼 은 유통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은 유통은 18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⁵⁷⁾ 다시 말해서 1750년대가 되면 인삼과 은 교역이 삭감 내지는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대마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대마도는 조선과 막부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신 파견을 성공시키면 그 사례로 막부로부터 특별 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조선에게서도 역시 경제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중반부터 ‘선린외교’라는 명분 뒤에 대마도의 심각한 경제 문제가 사행 파견을 재촉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 유통을 둘러싼 교역 체제가 위축되면서 통신사행 파견에 경제적인 문제가 급부상했던 것이다.

한편 1764년 통신사는 에도까지 왕래한 마지막 사절단이었다. 이 사행은 특별한 현안이 없었다. 당시 조선은 영조가 문화 정책에 힘을 쏟고

5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89~104쪽.

57)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은 유통 교섭 (1697~1711)』,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520~526쪽.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유통』, 『역사학보』, 221, 2014, 15~19쪽.

있지는 했지만, 한발과 기근으로 경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신사 외교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⁵⁸⁾ 다만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징은 문화교류 활동이 어느 사행 때보다 가장 활발하였고, 교류 양상도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의례적인 시문 창수 보다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역대 통신사행 가운데 가장 많은 43종의 필담 창화집이 저술되기도 했다.⁵⁹⁾

이러한 배경에는 100여년에 걸친 막부의 문치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과 일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藩校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학과 한문학이 크게 성행한 점을 들 수 있다.⁶⁰⁾ 즉, 통신사가 초기에 파견될 당시에는 일본 승려들만이 한문을 활용하였다. 막부의 관학을 林家가 책임지면서 유학을 진작시키기는 했지만 17세기까지도 일본의 유학과 한문학, 의학 등은 조선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 일본 유학자들은 사절단 일원과 필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출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일본의 주자학은 林家에 의해서 官學化하고 쇠퇴해 갔지만 대신 古學이 발전하고, 다양한 부류의 한문학과 양명학·난학·국학 등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1764년에 건너간 조선 사절단과 대등하게 시문을 논하고 심지어는 조선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을 표시하거나 필력을 무시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사행에서의 문화교류가 형태, 내용면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사행원과 일본 문사들이 직접 만나 교류를 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이다.⁶¹⁾

58) 정장식, 『영조대 통신사와 이덕무의 일본 연구』,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학교방, 2008, 104~131쪽.

59) 하우봉, 앞의 논문, 174~175쪽.

60) 하우봉, 위의 논문, 170~177쪽.

한편 막부 장군의 직위 승계를 축하하는 최후 병례였던 1811년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에서 규모가 축소된 328명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천재지변과 재해가 다수 발생한 점과 막부 및 대마도 번의 재정 궁핍으로 통신사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⁶²⁾ 전술한 것처럼 18세기 후반부터 수출품인 은과 동이 국내에서 산출이 고갈되어 조선과의 무역이 극도로 부진하자 번 재정은 파탄을 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때문에 대마번은 조선 교역 쇠퇴의 보상으로 특별지원금(御手當金)을 막부에 신청하고 그 하사금과 차입금으로 겨우 번의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⁶³⁾

이상으로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에 해당되는 통신 파견의 목적과 배경, 사절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신사에 대한 영접사례와 의례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재정 문제가 통신사 파견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마도가 번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선과 막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원조를 주장하는 ‘경제사절’ 성격이 한층 드러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시에 일본의 학문적 성숙으로 통신사행 간에 활발한 논

61) 상동

62)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40쪽. 최근 岩方는 막부가 역지통신을 추진한 이유로 조선멸시나 재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고이코(御威光)’ 때문으로 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에도의 조선외교 기능과 역지를 맞바꾼 것으로 보았다. 조선의 경우에도 통설과는 달리 통신사 예단 확보가 어려운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조선이 무기력하게 연기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리 외교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파악하기도 했다. 통신사 파견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교린문제와 파견 목적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岩方久彦, 「正祖代 대마도 易地通信 교섭과 ‘江戶通信’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289~298쪽.

63) 이런 가운데 통신사들이 대마도에 체재하는 동안에도 에도에서 大學頭 이외의 학자, 문인이 소규모로 내려와 통신사 일행과 문화교류를 계속하였다. 대마역지병례 이후 에도막부는 57년간 4명의 장군이 통치하였다. 막부 측의 통신사 요청은 1846년, 1856년, 1866년, 1876년 전후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명철, 위의 논문, 251~278쪽.

쟁이 벌어지면서 문화 교류가 한층 본격화 되는 문화사절로서의 통신사행 역할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1764년 마지막으로 에도까지 다녀온 후 원증거가 제시한 <通信有五利>를 통해서 통신사의 의의 및 활동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교린의 의의를 전하고 국서와 예물로써 수호하여 양국의 기쁨을 맺고 누세의 우호를 두텁게 함으로써 의심과 시기함을 없애고 변방의 평안을 얻는 점.

둘째, 일본의 地勢와 풍속을 살피고 政令과 서적 등을 견문해서 유사시에 기미를 알아 조치할 수 있는 점.

셋째, 대마도인의 간계와 횡포를 江戸幕府가 모르는데, 통신사행을 통해 폐해를 알리고 막을 수 있다는 점.

넷째, 우리나라의 舟楫 사용법이 본래 소홀하고 大海風濤를 겪은 경험 없는데 통신사행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사행의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이 예의염치를 알게 되면 군사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변경이 평안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⁶⁴⁾

위의 내용은 150년간에 걸쳐 축적된 통신사 사행들의 일본 인식에 대해 가감 없이 예리하게 서술한 것이다. 통신사의 역할은 일본에서 국가 체면이 훼손당하지 않게 에도막부의 장군직 승계를 축하하는 외교 의례 사절로서 국서를 무사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 정세가 안정되고, 외교 관계도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통신사의 정치적 의미는 감소되고 국서 교환이라는 의례적인 외교 행위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문화 교류라는 부수적인 기능이 양국에서 중시되면서 통

64) 『乘槎錄』 卷4, 甲申年 6월 14일 조.

신사 활동이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중거의 인식을 봐도 통신사 파견은 ‘선린외교’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문화교류 자체도 ‘일본을 문화적으로 계도하여 침략성을 순화시킨다’라고 한 부분에서 결국은 변방의 평안을 얻어 국가 존립을 유지하려 했던 ‘외교·정치사절’ 성격이 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임진란(壬辰亂) 이후 1607년 제1차 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한 조·일간의 국내외 사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란 이후 일본으로 처음 파견된 1607년 回答兼刷還使사 일행은 조선 국왕의 回答 국서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명분 없는’ 전후 처리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回答과 쇄환이라는 명분도 중요했지만 결국 제1차 回答兼刷還使사는 일본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정치·외교적인 사행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1606년 이후 에도성·스뽀성의 축조·무가의 권위 제도 장악·國繪圖 실시 등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하여 이에야스는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려 했고, 그 전제로서 통신사 파견을 재촉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이 요구한 이에야스 자신의 국서 요구와 犯陵賊 송환 문제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1606년은 히데요시 정권과 차별성도 생겼고, 에도막부 장군의 승계 문제도 마무리된 해이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대외적인 외교·무역에 집중함으로써 에도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장군 권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

해 조선과 교류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시기야말로 隣國인 조선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침략 위험을 해소하고, 국내 안정과 정권의 정당화를 어필하는데 조선의 통신사 파견과 국교 재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이에야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마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재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임진왜란 직후 일본과의 국교재개, 피로인 송환, 교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통신사행은 회답검쇄환사를 포함해서 12차례였다. 여기서는 <교린관계 모색 및 확립기>, <교린 관계 안정기>, <교린 관계 변화 및 쇠퇴기> 단계로 파악하여 정치사절, 외교사절, 경제사절, 문화사절로서의 통신사 활동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쇼군에게 조선 국왕 국서를 전달하는 외교의례(傳命儀)가 강조되는 문화사절로서 선린외교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는 궁극적으로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동하면서 조선의 존립을 지키려 했던 ‘정치·외교사절’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선조실록』 『古事類苑』 『乘槎錄』 『高山藤實錄 藤堂高虎』 『雨森芳洲全書』 3 『通航一覽』 권 27

2. 저서 및 논문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유통』, 『역사학보』 221, 2014.

김문자,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중앙사론』 44, 2016.

- _____, 「전쟁의 과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1997.
- 김태훈, 「17세기초 조일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학연구』 50, 2018.
-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朝·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 양홍숙, 「17世紀 前半 回答兼刷還使의 派遣과 經濟的 意味」,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학고방, 2008.
- 岩方久彦, 「正祖代 대마도 易地通信 교섭과 ‘江戶通信’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 _____, 「조선 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 『지역과 역사』 38, 2016.
- 이 훈, 「임란 이후 ‘회담겸쇄환사’로 본 대일본 외교 전략-선조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_____, 「병자호란 이후 1643년의 계미통사 파견과 대일본외교-외교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경인문화사, 2019.
- 장순순,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측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田阪正則, 「關白退休告知差倭(1746년)을 둘러싼 朝日間交渉」,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
-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은 유통 교섭(1697~1711)」,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 정장식, 「영조대 통신사와 이덕무의 일본 연구」,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학고방, 2008.
- 하우봉,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9, 2018.
- _____,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교일본학』 43, 2018.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荒木和憲, 「‘임진전쟁’의 강화교섭」, 『세키쿠치 글러벌 연구회』 발표문, 2018.
- _____, 「己酉約條의 締結·施行過程と對馬の「藩營」貿易」, 『임진왜란에서 조선 통신사의 길로』, 경인문화사, 2019.

- 谷徹也, 『秀吉死後の豊臣政權』, 『日本史研究』 617, 2014.
- 堀越祐一, 『「五大老」「五奉行」の成立と政治構造』, 『豊臣政權の權力構造』, 吉川弘文館, 2016.
- 渡邊美季, 『近世琉球と中日關係』, 吉川弘文館, 2012.
- 北島万次, 『加藤清正-朝鮮侵略の實像』 吉川弘文館, 2007.
- 本多隆成, 『定本 徳川家康』, 吉川弘文館, 2019.
-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銀と戦國の流通革命-』歴史文化ライブラリ-404, 2015.
- 山本博文外, 『豊臣五大老の實像』, 『豊臣政權の實體』, 柏書房, 2014.
- 三宅英利, 『近世アジアの日本と朝鮮半島』, 朝日新聞社, 1993.
- 水野伍貴, 『秀吉死後における家臣間の對立構造と推移』, 『戰國織豊期の諸問題』, 歴史と文化の研究所, 2018.
- 小和田哲男, 『北政所と淀殿』 吉川弘文館, 2009.
- 矢部健太郎, 『關ヶ原合戦と石田三成-敗者の日本史12』, 吉川弘文館, 2014.
- 安野久, 『關ヶ原前役前における徳川家康とフィリヒンとの交渉-ローマイエズ會文書による-』, 『キリスト教史學』 28, 1974.
- 鄭章植, 『使行録に見る朝鮮通信使の日本觀』, 明石書店, 2006.
- 仲尾宏,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鎖國」史觀を越えて』 明石書店, 2006.
- 池上裕子, 『織豊政權と江戸幕府-日本の歴史』 講談社, 2002.
- 津野倫明, 『蔚山の戦いと秀吉死後の政局』, 『ヒストリア』 180, 2002.

투고일 : 2019. 06. 10. 심사완료일 : 2019. 07. 04. 게재 확정일 : 2019. 07. 25.

| Abstract |

End of Imjin War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of Joseon
and Japan and the Joseon's Dispatches of Tongsin-sa to Japan
- Focused on the dispatches of Reply and Prisoner Repatriation
Envoy(回答兼刷還使) -

Kim, Moon-Ja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dispatching the 1st Reply and Prisoner Repatriation Envoy to Japan in 1607 after Imjin War(壬辰亂) based on the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of Joseon and Japan as well as the activity of missions dispatched to Japan regularly since then. Missions in late Joseon period were dispatched with different goals and backgrounds by period, but they all claimed 'friendly relationship' as 'political and diplomatic missions' to Japan's supreme ruler sent by the King of Joseon. Considering this point in mind, I have examined the activity of Tongsin-sa (mission) as 'political and diplomatic missions' that took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after Imjin War.

Especially, I examined the reason why Japan tried to settle down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quickly in relation to the domestic power seizure by Tokugawa Ieyasu(德川家康).

Consequently, in 1607, Reply and Prisoner Repatriation Envoy delivered reply credentials by the King of Joseon wrapping up 'unjustifiable' postwar settlement. I also noticed that it made a prototype of political/diplomatic conduct dispatched to cope with Japan's military force even though the justification of reply and prisoner repatriation were also important.

Meanwhile, in 1606, Ieyasu tried to resum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oseon against political situation in Japan such as construction of Edo Castle and Seunppu Castle as well as seizing authority system of warrior family, and as a premise, Ieyasu pressed for dispatching Tongsinisa (mission). It seemed that Joseon's request for Ieyasu's own credentials and repatriation of criminals could be flexibly responded.

In 1606, Japan made difference with Hideyoshi regime, and finalized succession issue of generals of Edo Bakuhu. Therefore, Ieyasu seemed to have tried to interact with Joseon to raise prestige of Edo Bakuhu and herald the absoluteness of general's power by focusing on the foreign diplomacy and trade.

Finally, 12 dispatches of Tongsinisa (mission) to Japan after Imjin War for resume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repatriation of prisoners, and recovery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understood as <Groping and Establishing Period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Stabilizing** Period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Change and Declining** Period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by the goal of dispatch, and I examined their activity as political envoy, diplomatic envoy, economic envoy, and cultural envoy. Eventually, I could identified it again that Tongsinisa had strong tendency as political and diplomatic envoy that tried to protect the existence of Joseon while interlocking with the 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

Key words: Imjin War, mission, Reply and Prisoner Repatriation Envoy, Edo Bakuhu, political and diplomatic mission